

世界科學技術史〈東洋篇〉

後漢의 王充과 六朝時代의 鍊丹術

朴 星 來
〈韓國外國語大教授 文博〉

後漢의 비판적 科學思想家 : 王充

전국시대를 특징짓던 음양오행설과 道家의 神仙사상등 다양한 요소가 통일된 중국을 지배했다. 이와같은 漢代의 미신적인 풍토를 배격하고 나선 대표적 사상가가 王充(27~100AD)이다. 그의 글 85편은 오늘날 <論衡> 속에 남아있는데 이 책은 당시로서는 가장 비판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해도 좋을 정도의 날카로운 비평으로 되어 있다.

王充은 그나름으로는 자기가 살던 시대의 非合理的인 사고방식에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자기가 이 비판서를 쓰게 된 동기를 “한마디로 말해 나는 거짓을 미워하기 때문”(疾虛妄)이라고 말한다. “옳은 것이 그르게 여겨지고 거짓이 참인듯 여겨지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까보냐?”고 반문한 王充은 이럴 때마다 자기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고 붓을 잡은 손은 떨린다고 말한다. “이들을 비판하는데에는 마음 속에서 검토하고 사실과 대조해 본 뒤 증거를 제시하여 그 거짓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王充의 <論衡>에 흔히 등장하는 표현은 “어떻게 이를 증명하는가?”(何以驗之)라는 표현이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나 그는 당대에 널리 믿어지고 있던 통설을 소개하고는 그것이 틀린다면 자기 주장하는 올바른 생각을 설명한다. 여기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어떻게 이를 증명하느냐고요?”라는 표현인 것이다.

王充은 2세기초 胡適같은 학자들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특히 증공에서 唯物論사상가로서 아주 높이 평가되고 있다. 王充은 꼭 反佛敎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유학자들은 맹렬히 비난했다. 분명히 道家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는 특히 董仲舒같은 대표적 유학자들이 유교를 음양오행이나 기타 纖維說등으로 더럽히고 있음을 비판한 것이다. 王充은 天과 人과 自然을 보는 보다 合理的인 태도를 들고 나선 것이었다.

이미 전에도 소개한 것처럼 董仲舒같은 사상가는 有神論的인 墨子의 사상을 받아들여 하늘(天)이란 그냥 푸른 것 이상의 존재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前漢 시대의 儒學이 天을 人格神으로 인정한 것은 그럼으로써 天命사상을 발전시키고 이로써 王權을 어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요구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王充은 道家의 天사상을 부활시켜 天은 아무 의지도 가지지 않은 푸른 하늘일 따름이라 주장한 것이다. 입도 귀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 감각기관도 갖지 않은 天은 無意無心하며 따라서 天은 “無爲”라는 입장이다. 天道는 無爲自然이라는 道家의 설이 옳다고 그는 단정짓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간은 “有然”의 존재로서 天과는 다르다는 것이 王充의 생각이다. 天과 人을 이렇게 구별해 보려는 王充의 태도는 天人相類와 天人合一을 주장하는 董仲舒와 정반대라고도 합적하다.

天의 神性을 부인하고 그 “無爲”(의식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하지 않는다는 뜻의 道家의 기본

사상)를 주장한 王充은 오늘날 중국 고대 최고의 無神論者로서 중국학자들 사이에 높이 평가된다. 사실 그의 無神論은 天에 관한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당시 사람들이 대개 믿고있던 땅 위에 있는 여러가지 귀신에 대해서도 그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王充은 자기 無神論을 여러가지로 증명해 보인다. 재미있는 주장 몇 가지만 들어 보자.

“사람은 物이며 다른 物도 또한 物이다. 다른 物(이 경우 동물을 연상하면 좋을 듯)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는데 같은 物인 사람만이 죽어서 홀로 귀신이 될 수 있겠는가?”

“설령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귀신은 사람이 보면 별거벗은 상태여야만 될 것이다.”——의복에는 영혼이 없으니까 사람만 영혼으로 남을 것이고 의복은 모두 썩어 없어졌다면 死者의 귀신은 모두 별거숭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귀신을 본 사람들은 별거숭이를 본 일은 별로 없다는 것이 王充의 주장이다. 귀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王充이 든 또 하나의 예는 부부에 관한 것이다. 살아있는 동안 부부는 서로 상대방의 부정에 크게 분노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부부중 한 사람이 죽고 나머지 사람이 재혼을 해도 죽은 귀신이 그 배우자에게 禍를 내리는 일은 없다. 귀신이 정말 있다면 사랑하던 자기의 배우자가 재혼하는 모양을 그냥 참고 있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天의 神性を 부정하고 나아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한 王充은 인간도 별것 아닌 자연물에 불과하다고 내세운다. 유교의 근본사상 하나가 지극한 人間中心思想임을 본다면 王充의 이 부분은 그야말로 反儒敎的이라 하겠다. 이미 앞에도 인용한대로 그는 인간이란 별 수 없이 다른 동물이나 같은 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는 사람은 벌레와 마찬가지로도 말한다. — “사람이란 또한 벌레다. 사람은 벌레가 먹는 것을 먹고 벌레 역시 사람이 먹는 것을 먹는다”(人亦虫也 人食虫所食 虫亦食人所食).

인간이나 벌레가 같은 것을 섭취하여 존재하

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무슨 근원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王充의 주장은 극히 唯物論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증공의 학자들이 그를 중국 고대의 대표적 唯物論 思想家로 꼽는 이유를 이해할 만하다.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은 인간이 天地之間에서 살고 있음은 마치 이나 벼룩이 옷 속에서 살고 개미가 흙속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고 표현된다. 따라서 이와 벼룩 또는 개미가 옷사이 또는 구멍속의 氣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天地사이의 氣를 뜻대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王充의 이런 태도는 일종의 運命論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의 글 속에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宿命이 있다는 투의 체념이 흐르고 있는 듯도 하다. 따라서 인간이 天에 무엇을 빌어 본다는 것은 허황된 일이다. 天은 이미 아무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으나 비록 天이 하느님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天이 인간의 祈願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는 것이 王充의 주장이다. 마치 이나 벼룩이 아무리 기도하고 빌어 본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늘(天)도 인간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無神論者이며 인간중심적인 사상을 배격한 王充은 따라서 자연현상을 자연현상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 董仲舒는 有神論을 유교에 도입하여 天을 人格神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모든 일을 天이 감시한다고 설명했다. 董仲舒가 완성해준 유교의 政治思想은 바로 이와같은 天人關係를 바탕으로 하여 天命을 받은 王이 지상에서 天意에 따라 善政을 베풀 의무가 있다고 가정했다. 그런데 王이 善政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漢代 儒學에서는 災異說이 등장한 것이다. 즉 天命을 받은 王이 지상에서 정치를 잘하지 못할 경우에는 天은 자연속에 온갖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 王을 譴告한다는 것이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失政이 거듭되면 天命을 회수해버려 革命이 일어난다.

王充은 바로 이와같은 董仲舒의 災異說도 맹렬히 반대했다. 이미 天에 아무런 意志를 인정

하지 않은 그로서는 자연현상이 天意의 표현일 수는 없었다——“天道는 自然이며 無爲이다. 만약 하늘이 인간을 讒告한다면 이는 有爲이며 자연스럽지 않다.”

비슷한 태도는 이미 전국시대에 荀子에 의해서도 표현된 적이 있다. 그러나 漢代에 들어와 災異說이 확립되고 몇몇 재상은 災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까지 한 상황 속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王充의 용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는 가뭄과 홍수가 모두 때가 되면 그렇게 된 것이지 인간의 잘못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고 기후가 때에 알맞게 추워지고 따뜻해지는 것도 자연현상일 뿐이라 풀이했다. 또 정치의 잘못으로 日蝕·月蝕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이 경우에는 일식·월식은 週期性을 가진 것임을 보여 주기까지 했다. 그는 일식은 대강 41~42개월에 한번 일어날 수 있고, 월식은 180일에 한번꼴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王充은 漢代의 지배적인 自然觀을 모두 부정한 탁월한 사상가였고 그의 사상은 당시로서는 극히 합리적인이었고 그만큼 더 科學的이었다고 하겠다. 그 때문에 오늘날 그의 위치는 중국사상사와 중국 과학사에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論衡〉이 당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큰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나 참신한 주장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論衡〉은 丁若鏞등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그의 영향을 너무 크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六朝時代의 鍊丹術：萬洪의 (抱朴子)

王充의 합리적 사상이 오래가기 어려웠던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정치적 정세의 변화였다. 後漢이 기원 220년에 멸망하자 중국은 589년 隋에 의해 다시 통일되기까지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말려들었고 이런 정치적 혼란기에는 合理主義보다는 神秘主義가 보다 어울렸을 것은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後漢이 멸망한 뒤 중국은 유명한 三國으로 나뉘었다. 〈三國志〉로 너무

나 유명해진 이 시대는 魏·吳·蜀의 갈등이 곧 魏의 계통을 이은 六朝와 그밖의 분열된 王朝가 꼬리를 이어 반복되는 혼란으로 이어졌다. 소위 六朝시대가 열린 것이다.

六朝시대의 신비주의 경향은 道敎에 의해 즉각 흡수되어 소위 道士라고도 불리우는 方士 또는 術士들이 이 전통속에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老子와 莊子에 의해 시작된 원래의 道敎는 지극히 자연주의적인 철학사상이었으나 그다지 神秘的인 경향을 띠었다고는 하기 어렵다. 실제로 王充은 바로 道敎의 영향속에서 지극히 合理的인 자연관을 내세워 迷信化해가는 유훈을 비판했던 것이다. 훨씬 전부터 方士나 術士는 중국에 일어났으나 그것이 道敎의 탈을 쓰기 시작한 것이 六朝시대라는 뜻이다.

이 神秘사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不老長生을 이상으로 내세우는 神仙術이다. “竹林七賢”으로 대표되는 쾌락주의 또는 이기주의적인 태도는 사실상 이때 이후 동양의 지식층, 즉 士大夫들의 변함없는 꿈이 되었다. 이 시대의 도피사상은 그뒤 士大夫들이 그들의 정치적 야망을 이룰 수 없을 때면 언제나 시골에서 田園생활을 즐기겠다는 “自然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심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적극적인 神仙術은 어떻게 전개되어 온 것일까? 실제로 神仙사상의 발달은 戰國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오를 수 있으나 그것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로는 秦始皇(247~210 B.C. 在位)이나 漢의 武帝(141~87 B.C. 在位)를 들 수 있다. 秦의 시 황제는 신선사상을 믿고 不老不死의 仙藥을 구하기 위해 方士 徐福을 시켜 童男童子를 이끌고 바다 저쪽의 仙山으로 파견했다. 〈史記〉封禪書에도 나오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중국의 동쪽 바다, 즉 渤海 속에 三神山이 있고 그 산속에는 仙人이 있고 不死藥이 있다고 믿었다. 거기 있는 것은 모두가 흰빛이며 궁궐은 황금이나 백금으로 지어져 있다. 멀리서 보면 구름과 같이 보이고 가까이 가보면 그곳은 물아래에 있음을 알게 된다. 거기 이르면 바람이 불어 더 이상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신선이 사는 三神

山으로는 보통 蓬萊·方丈·瀛州의 셋이 일컬어졌고 우리나라의 금강산이 蓬萊山으로 불리게 된 것도 여기 기원한 것임은 물론이다.

漢武帝도 神仙術에 들떠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秦始皇이 거느린 方士들이 三神山에 가서 이미 거기 있다는 不老長生藥을 구하려 한 것과는 달리 漢武帝 밑에 있던 李少君 등의 方士들은 不死藥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즉 불사약 丹을 얻으려는 노력은 바로 人工不死藥을 제조하려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古代의 化學이었던 셈이다. 그후 줄곧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方士들은 不死藥 丹을 만드는데 온갖 정력을 기울였고, 이런 경향은 같은 연구를 숲을 만드는데 기울여 온 서양의 전통과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鍊丹術의 전통이 後漢末의 魏伯陽에 의해 <周易參同契>란 책으로 남게 되었고 이를 더욱 뚜렷이 후세에 남긴 것이 葛洪(283~363)의 <抱朴子>이다. 이들 책을 통하여 후세에 크게 발달한 鍊丹術은 內丹과 外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호흡을 조절한다거나 좋은 일을 함으로써(積善), 또는 음식을 줄이거나 곡식을 끊어 감으로써 不死의 경지에 이르는 길이 內丹이라면 이와 달리 밖으로부터 인체에 무엇을 加하여 不死에 이르는 길을 外丹이라 했다. 丹을 만들어 먹는 것은 다른 약품의 복용과 함께 外丹이 되는 셈이다. 葛洪의 <抱朴子>는 內丹도 물론 다루고 있으나 보다 더 外丹에 기울고 있다.

중국 과학사의 세계적 권위자인 니덤(Joseph Needham)이 “중국 최고의 鍊丹術者”라 부른 葛洪의 책 <抱朴子>는 內篇 20권과 外篇 50권으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의 內篇은 道家의 鍊丹術을 소개한 것이지만 外篇은 오히려 儒家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사회정치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葛洪은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나무를 해다 팔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의 從祖인 葛玄에게서 鍊丹을 배운 鄭隱을 스승으로 하여 鍊丹을 배웠다. 抱朴子란 그의 號이기도 한데 그는 <抱朴子> 밖에도 92명의 神仙에 대한 전기

<神仙傳>등 많은 글을 후세에 남겼다. 또 그는 81세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으며 몸이 유연했고 시체는 텅빈 수의를 드는 것처럼 가벼웠다는 전설을 남겼다. 道教에서는 仙術의 정도에 따라 神仙이 되는 정도가 달라 天仙·地仙·水仙·尸解仙 등이 있다고 믿었는데 葛洪은 바로 尸解仙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抱朴子> 卷二에 있는 것처럼 최고의 道士는 육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天仙이 되고 그 다음 수준의 道士는 名山에 노닐어 地仙이 된다. 그런데 下位の 道士는 일단 죽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매미처럼 껍질만 남아있는데 이름 尸解仙이라 한다는 것이다.

葛洪은 仙藥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丹砂, 다음이 黃金, 다음이 白銀 등의 차례를 이룬다고 쓰고 있다. 또 그는 숲을 만들고 그것을 주성분으로 한 不死藥(金丹)을 만드는 것도 소개하고 있다. 불에도 변하지 않고 땅속에서도 영원히 녹슬지 않는 금을 섭취함으로써 인간은 영원한 젊음(황금시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抱朴子>에는 여러가지 丹藥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효험을 보는지가 상세히 적혀있다. 예를 들면 그의 九丹 소개에 의하면 아홉가지 丹의 제조법이 비교적 자세히 쓰여있고 그 효과로는 복용 7일만에 仙人이 되는 것에서부터 복용 후면 창과 칼이 튀어 나가는 것, 악귀나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는 것 등이 열거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나오는 약품 이름은 배로 분명치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얼마씩 어떻게 석고 어떻게 가열하는지가 확실치 않아 오늘 그대로 실험해 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丹이나 숲을 만드는 방법 이외에도 <抱朴子>에는 음식을 점점 적게 섭취하여 드디어 仙人이 되는 법, 부적을 달아 창과 칼을 피하는 법, 아예 투명인간이 되어 버리는 遁甲術, 占하는 방식, 그리고 몸의 각 부분을 단련하고 長壽를 위한 신체 단련법(오늘의 요가 비슷한 것)과 房中術 등이 설명되고 있다.